

리포트

김제시 기업지원 위한
비즈니스 테이블 개최

김제시와 (재)전북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은 지난 26일 김제시청 3층 회의실에서 '기업지원 비즈니스 테이블'을 열었다. 기업지원 비즈니스 테이블이란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기관과 기업 간 공평 관심사항을 도출하여 공동의 해결 노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립 한지 5년 이하의 기업이 주로 참여했다. 이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사전에 조사하였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위원과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각 기업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 감사하다. 경영분야와 기술적인 분야까지 전문위원과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한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부안군, 자전거타기 등 행사

부안군이 정원문화도시 조성과 자전거도로 확충을 통한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자전거타기 행사를 가졌다. 지난 24일 부안군 푸른도시와 직원 20여 명이 약 5시간 동안 부안읍 매창공원에서 돈지 배수갑문과 계화도 양 지향 6마세 저수지, 매창공원 등 50km에 달하는 부안군 자전거 도로를 질주했다. 이 구간은 불멸의 이순신 영상세트장이 위치한 석불산과 계화지평선이 보이는 황금클빙, 새만금 바다를 가로지르는 전곡 유원지이한 산 들, 바다 경관을 갖추고 있어 자전거 라이딩과 MTB(Mountain Bike)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자전거도로 코스이다. 부안군 권재근 푸른 도시과장은 "앞으로 자전거 인구 1200만 명이 방문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려고 자전거도로 여건 개선 및 정밀한 자전거길 안내지도와 홈페이지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부안의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2005년부터 주상천에서 동진 대 교까지 36km, 2013년부터 2016년 말까지 동진 대 교에서 출포면까지 33km 등 총 69km 구간의 자전거도로 확충을 완료한 계획이다. /부안=이목수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유진섭)는 2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1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상중 의원의 '이승만 기념 정읍발전종합계획'의 의결, 정병성 의원의 '생명중시 시민안전 대책', 이도형 의원의 '내장산 관광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 구 내장산 조세지 주변 정비'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은 후, 2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급후 일정으로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위원회별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기상청 연수원 건립사업 관련 등 7개소이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안진종합관리센터 구축 등 7개소이다. 의원들은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장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정취를 받고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필터분야 강소기업인 ㈜쓰리애이씨가 제2공장을 신축키로 한데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인 (유)웰스팜과 인경제조업체인 (주)아이테크코 투자를 확정했다. 김제시시장과 (유)웰스팜 장근택 대표, (주)아이테크 김영권 대표는 27일 시장실에서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신정동 첨단과학산단 입주 릴레이

정읍시,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웰스팜·안경제조업체 아이테크와 투자협약 체결

수도권 규제완화와 금리인상, 브렉시트 등에 따른 지방으로의 투자유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신정동 첨단과학산단입주에 기업들의 입주신청이 이어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달 20일 필터분야 강소기업인 (주)쓰리애이씨가 제2공장을 신축키로 한데 완제의약품 제조업체인 웰스팜과 안경제조업체인 (주)아이테크도 투자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제시시장, 웰스팜과 (주)아이테크 관계자는 지난 27일 시장실에서 공장 신설 투자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웰스팜은 첨단과학산단입주내 부지 8천161여㎡(2천488평)에 30억원, (주)아이테크는 3천836여㎡(1천160평) 부지에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면 모두 50여개의 일자리 창

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수입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김 시장은 양 기업의 정읍 투자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웰스팜과 아이테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3대 국책연구소, 지역유관기관 등과 함께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가을 꽃구경은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즐기세요"

김제시 전역에 코스모스, 꽃조형물, 화분배치 등 꽃경관조성 총력

김제시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리는 김제지평선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방문객 및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벽골제 행사장을 중심으로 김제시 전역에 코스모스, 꽃조형물, 화분배치 등 꽃경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김제시 전역에 펼쳐지는 코스모스 4백리길은 지평선축제기간에 랜트마크로 자리잡고 있어 올해도 가을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벽골제 행사장에는 문화마당에 높이 13m의 대형꽃탑을

비롯하여 생대연못 등에 웅장한 꽃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도인 벽골제로에는 가로등걸이화분 120개와 다라간길 행사장을 중심으로 김제시 전역에 행사장 곳곳에 국화 등 7종 약 8만본의 꽃과 6,400여개의 화분을 배치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특히 유달리 심했던 올해 여름철 폭염과 가뭄을 이겨내고 피워낸 코스모스는 그 가치가 더욱 아름다워 이번 가을 김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벽골제 행사장에 설치될 대형꽃탑은 벽골제 수문을 형상화하고 바람의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체험형 조형물로 꽃 미끄럼틀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재미를 돋우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야간 조명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축제 흥분 및 포토존 제공에 한몫을 북돋울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위상에 걸맞는 화려한 꽃경관 조성으로 지평선축제를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가을여정의 맛을 한층 고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부안군, 농촌체험관광 이끌 농촌체험지도사 21명 배출

부안군의 농촌체험관광을 이끄는 농촌체험지도사 21명을 배출했다. 지난 28일 충남 홍성군 문당 마을에서 교육생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농촌체험지도사 양성 교육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로써 부안군체험관광휴먼마사회 일원인 계화, 계화, 보안, 사당, 강, 우리, 진서, 구룡호수, 산들, 바다, 상서, 수련, 하서, 삼천, 출포, 후촌갈대숲, 각종 마을이 농촌체험 지도사를 보유하게 되었다.

교육생들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1~2회씩 총 12회에 걸쳐 그동안 문화와 감성이 집약된 체험상품개발, 전문가 양성 주제로 체험상품 기획 및 홍보마케팅 실무, 체험관광 활성화, 마을 견학 및 토론, 체험상품 개발 실습, 고객관리 및 서비스 운영 실습, 안전교육 등 농촌체험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수료하며 농촌체험에 전문가가 될 준비를 하였다. 앞으로 농촌체험지도사는 농촌체험현장에서 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방문객들의 수요에 맞춘 체험프로그램 지도로 부안군의 농촌체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부안군청 농업경영과장(조용환)은 "농촌체험에서 체험지도사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이번이 21명이 수료를 함으로써 부안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큰 기폭제가 되며 앞으로도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려고 체험지도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목수 기자

정읍시, '산림소득 공모사업' 선정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

정읍시의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이하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이 산림청이 실시한 '2017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친환경 임산물을 수집·선별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가공·포장·판매하며, 체험 및 교육 등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지종합유통센터 건립에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비 5억원과 도비 6,000만원을 비롯 시비 1억4,000만원과 기부금(정읍산림조합) 3억원

모두 10억원이 투입된다. 정읍산림조합의 부지 4,021㎡에 건축면적 2,307㎡로 건립되며, 판매장과 선별 및 가공포장, 저장시설, 유리온실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산지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지역 임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함께 고품질 임산물 생산의 탄탄한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임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산림(임업) 관련 생활편익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경찰서, 교통안전 공모전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27일 교통안전이라는 주제로 교통약자 교통안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통안전에 대한 공모전을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김제경찰서는 이번 공모전에서 교통안전, 교통약자, 교통안전 등 심사위원들이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잘 표현하고 창의성이 뛰어난 작품 14점을 예비심사로 선정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에서 예비심사로 선정된 131점의 작품에 대해 9월 28일 전북미술협회 등 외부 심사위원들과 함께 최종심사를 거쳐 22점을 입선작으로 선정했다. /김제=곽태 기자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26일 식중독 관련 유관기관 9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식중독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식중독 대응 협의체' 회의 개최

정읍시보건소, 유관기관 함께

정읍시보건소는 지난 26일 식중독 관련 유관기관 9개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식중독 대응 협의체' 회의를 가졌다. 체계적인 식중독 예방관리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정읍교육지원청과 축산과, 복지여성과, 감염병 부서 및 각 기관단체 등 관련부서 대표 및 담당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과 함께 문제점에 대한 논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식업협회, 어린이집협회 등 관련 단체와 기관 간 유기적 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구축, 집단급식소 등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과 대표자들의 식중독 관련 사항

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교육활동 강화, 물 사용과 관련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 홍보 등이 중점 논의 됐다. 또한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발생 취약지역 예방관리에 나서는 한편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업소의 경우 특별합동점검 실시와 민간단체의 회원업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 관리 등 자율지도에도 나시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식중독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 그리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며 "순 씻기와 익혀 먹기, 끓여먹기 등 개인위생 관리와 식중독 위생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건식 김제시장이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한 2016년 대한민국 혁신 기업인 대상 수상식에서 '공유가치창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김제시 혁신경영 인정'

이건식 김제시장 '대한민국 혁신 기업인 대상' 영예

이건식 김제시장이 2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한 2016년 대한민국 혁신 기업인 대상 수상식에서 '공유가치창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혁신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공적을 심사하였고 전국 유일의 무소속 3선 자치단체장인 이번 김제시장의 자치 혁신 경영으로 김제 백년대계를 일궈낸 과정들이 인정을 받았다. 이 시장은 민선 4기 취임이후 김제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에 열정을 다해 왔으며, 1%의 가능성만 보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정신이 이 시장에서 빛을 발한 핵심사업들이 차근차근 결실을 맺으며 김제시는 차세대 신산업 성장 교두보를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다. /김제=곽태 기자

그 결과 김제시는 농업중심 소도시에서 벗어나 농공이 조화된 신산업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했고 새만금, 종자 농생명산업, 신산업, 문화관광 등 전 분야를 밀리하여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희망의 도시로 눈부시게 발돋움하며, 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려가고 있다. 이번 김제시장은 "오늘 이상은 김제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 명품축제로 자리잡고, 10.5km 새만금 비탈길에 흥취체험 갈라차며, 종자 농생명산업과 신산업의 거점으로 우리 김제가 우뚝 서기까지 끝까지 믿어주고 달려와 준 김제시민과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리드하는 허브가 될 수 있도록 10만 시민과 함께 기적의 패달을 계속 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